

(68.1%) 이었다. 그리고 1998년 9월 처음 내원한 환자 3417명 중 577명(16.9%)이 진료지속성이 있었고 2000년 9월 처음 내원한 환자 4560명 중 275명(6.0%)이 진료지속성이 있었다. 1998년 9월 처음 내원한 환자들의 평균 내원일수는 8.2±9.2일, 처방일수는 104.8±113.8일,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13.5±12.1일, 본인부담률은 42.5±15.0% 이었다. 2000년 9월 처음 내원한 환자들의 평균 내원일수는 10.0±9.4일, 처방일수는 48.9±81.5일,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4.3±6.5일, 본인부담률은 35.3±15.7%였다. 1998년 9월 내원한 환자 중 진료지속성이 있는 환자의 연간 내원일수는 20.4±10.7일, 처방일수는 313.5±43.3일,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19.7±10.6일, 본인부담률은 39.7±14.0% 이었다. 이에 반면 2000년 9월에 처음 내원한 환자 중 진료지속성이 있는 환자의 연간 내원일수는 24.6±10.7일, 처방일수는 304.4±46.2일,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14.8±7.1일, 본인일부부담률은 29.4±8.8% 이었다.

**결론:** 의약분업 실시 후 3차 기관을 이용한 환자수는 감소하였고 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진료지속성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의약분업을 실시 후 고혈압 환자의 내원일수는 증가하였고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감소하였다. 본인부담률은 의약분업 이후 감소하였다. 의약분업으로 진료지속성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약분업 후 고혈압 환자의 진료지속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 KSPM-154

### DISCERN을 이용한 우리나라 인터넷 건강정보 질 평가

#### Assessing the quality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based on DISCERN

박재현<sup>1)</sup>, 조비룡<sup>2)</sup>, 김용익<sup>1)</sup>, 신영수<sup>1)</sup>, 김윤<sup>1)</sup>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목적:**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함께 질병관리와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DISCERN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외국, 우리나라의 각 제공주체 별로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방법:** 평가대상이 되는 건강정보는 유방암, 천식, 우울증, 비만으로 선정하였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웹사이트 선정은 2004년 1월 각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사이트 8개에서 공통적으로 방문자 수 기준 상위 20% 이내에 등록되어 있는 순위 제공 사이트 7개를 선정하였다. 이 순위제공 사이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방문자수 기준 상위 20% 등록되어 있는 건강관련 웹사이트 중 질병별로 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연구 대상인 건강정보 4개 중 3개 이상의 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제외한 10개의 웹사이트(민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 6개, 의료기관 웹사이트 3개,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1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웹사이트와 비교 대상이 되는 외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는 MEDLINEplus와 NHS direct를 선정하였다. 이상 선정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12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방암, 천식, 우울증, 비만에 대한 45개의 건강정보를 최종 평가대상 건강정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강정보에 대해 간호사 2인이 서로 독립적으로 DISCERN을 이용하여 질을 평가하였다. DISCERN은 건강정보의 신뢰성과 치료에 대한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건강정보 질 평가 도구이다.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평가 대상 건강정보의 50%를 두 평가자가 공통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두 평가자의 점수에 대한 카파 통계량은 0.37이었다. 우리나라와 외국, 우리나라의 각 제공주체별로 평가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들 그룹의 평균점수에 대해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였다.

**결과:** 우리나라와 외국 웹사이트의 질 평가점수는 각각 2.08점, 3.50점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우리나라의 각 제공주체별로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민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1.80점), 의료기관 웹사이트(2.33점), 공공기관 및 협회의 웹사이트(3.00점)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 = 0.08$ ).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의 신뢰성 영역에서 우리나라(1.99점)가 외국(3.62점)보다 낮았으며( $p < 0.0001$ ), 치료정보의 질 영역에서도 우리나라(2.03점)가 외국(2.82점)보다 낮았다( $p < 0.0001$ ). 우리나라의 각 제공주체별로 각 영역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정보의 신뢰성 영역에서 민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1.90점), 의료기관 웹사이트(1.97점), 공공기관 및 협회의 웹사이트(2.73점)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p = 0.05$ ), 치료정보의 질 영역에서도 민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1.71점), 의료기관 웹사이트(2.34점), 공공기관 및 협회의 웹사이트(3.33점)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 < 0.0001$ ).

**결론:** DISCERN을 이용한 평가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는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로는 정보의 신뢰성과 치료정보의 질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경우 건강정보의 신뢰성과 치료정보의 질 모두에서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다른 웹사이트보다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기존 건강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거나 건강정보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KSPM-156

### 대장암 환자에서 의료진과의 관계와 삶의 질의 연관성

#### Associ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하경수<sup>1)</sup>, 김혜련<sup>2)</sup>, 임경진<sup>2)</sup>, 정주원<sup>2)</sup>, 최경희<sup>2)</sup>, 심지선<sup>1)</sup>, 안성복<sup>1)</sup>, 허남욱<sup>1)</sup>, 김현창<sup>1)</sup>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목적:**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는 질병의 치료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대장암치료에서 생존기간과 더불어 삶의 질 척도가 중요한 치료성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의 대장 직장암 환자에서 의료진과의 관계와 환자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